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 완주군지점,보이스피싱 예방

갑수목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은행직원의 현명한 대처로 피해를 사전 예방해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김대호) 완주군지점에서는 고객이 4천만원을 대출받아 송금 하려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해당 피해자 k씨(여,67)는 지난 2021년 주식리딩방으로 5백만원의 사기를 당했고 이 사실을 보이스피싱업자가 우연히 알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접근했다.

이어 피해구제는 코인으로 보상해야 하고 통장거래 실적에 필요하며 4천만원 대출을 본인들에게 송금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피해자는 카드대출을 통해 4천만원을 대출받고 사기범에게 입금하러 다행히 친하게 지내던 농협 완주군 지점장(김순임)에게 문의하자 김지점장은 금융사기임을 즉시 인지하고 고객을 설득 이를 만류하고 카드 대출을 상환시켰다.

아울러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추후 사기에 대해서도 예방했다. /김영태 기자



'디딤돌' 전주 봉사단체, 사랑나눔 급식봉사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회장 성기봉) 회원들은 한사랑복지회에서 '사랑나눔급식봉사'를 지난 24일 실시했다.

이날 디딤돌 회원 20여 명은 '사랑나눔급식봉사'를 위해 정성스레 밥을 짓고 반찬을 손수 만들며 한분한분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담아 식사대접을 했다.

또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에 모인 과일, 음료 등을 오신 모든분들에게 골루 드리며 식사가 끝날때까지 옆자리에 앉아 반찬을 올려주며 같이웃는 점심식사 자릴 만들었다.

특히 식사 후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디딤돌 회원들은 놀이시설을 조립하고 점검하며 청소까지 주변을 정리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휴식자리까지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디딤돌 봉사단체는 전주시의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기 등 사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디딤돌 성기봉 회장은 "주위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불우한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마음샘아동가족센터와 협약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오아름)는 서신동에 위치한 마음샘아동가족센터(센터장 송기춘, 전은정)와 국내·외 아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역 내 위기정 아동들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마음샘아동가족센터는 해외 아동 정기 후원에도 참여해 국내 및 해외 아동들을 위한 나눔 실천하게 됐다.

송기춘 마음샘아동가족센터 센터장은 "지역 내 굿네이버스 각 사업장에서 다양한 도움을 펼치고 있는 것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협약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아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지역 내 위기가 발생한 가정과 해외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나눔 실천까지 동참해준 마음샘아동가족센터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전 청원 자살예방교육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정명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김제시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29일 김제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전 청원이 생명지킴이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3,352명이며 OECD 가운데 1위로, 하루 자살자 수가 36.8명 1시간당 1.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김제시에서도 2021년 한 해 동안 36명이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해내고자 김제시에서는 전 직원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이웃과 주민들의 자살 신호와 단서 등을 알아차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수 있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김제시 전 청원 생명지킴이 교육을 계획하게 되었다.

정명주 김제시장은 "전 청원이 김제시의 생명지킴이가 되어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자살 위험에 처한 이웃과 주민들의 사회적 울타리를 형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조합원 삶의 질 향상 위해 더욱 노력”

전주농협, 모악영농자재센터 개점식 개최

전주농협은 총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기존 압곡창고로 사용하던 100평 규모의 창고를 재단장해 '모악영농자재센터'로 재탄생시켰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완산구 중안동 모악영농자재센터에서 개점식을 개최했다.

29일 임인규 조합장을 비롯해 김대호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장 박준근 농협호남지재유통센터장 전북도의원 전주시의원 및 농민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모악영농자재센터의 개점을 축하했다.

자재센터에는 약 3000여 종의 다양한 농자재를 구비했으며, 이에따라 조합원들의 영농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영농활동에 고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벽화 이미지에 표현했다.

전주농협은 품질 좋은 농자재를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조합원과 지역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임인규 조합장은 "모악영농자재센터 개점을 통해 조합원과 농업인들에게 품질 좋은 영농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영농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농가소득 증대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김제시, 2023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평생학습도시 김제시는 지난 28일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12개소와 기관 운영 우수프로그램 5개소를 선정하여 총 3,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모 심사결과 최우수동아리에 우리쌀을 이용 레시피 연구 및 재능기부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퍼선쌀 빵연구회'가 선정되었으며, 우수동아리에는 △글꽃밭리 △김제문화예술촌 등 10개 동아리가, 신규동아리에는 △나예동아리 △원림원예치유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최우수동아리에는 150만 원 우수동아리에는 각 130만 원, 신규동아리에는 각 110만 원을 지원한다.

기관운영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프로그램에는 청소년발달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방학, Together!' (김제제일사회복지관)가 선정되었으며, 우수프로그램에는 다시 봄 놀이터 V3(길보러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최우수기관에는 400만 원, 우수기관에는 각 350만



원을 지원한다. 김제시는 경쟁력있고 안정적인 평생학습 도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학습공동체 형성의 가장 기초단계인 평생학습동아리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총, 원광대병원·치과병원과 협약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29일 원광대병원(병원장 서일영)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북교총에서 이기종 회장을 비롯해 정광자 부회장, 오한섭 사무총장, 익산교총 정영훈 회장, 국회정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원광대병원에서는 서일영 병원장, 김준용 행정처장, 최재창 총무팀장, 소외섭 대외협력팀장, 강민호 건강검진팀장이, 또 원광대치과병원에서는 강경화 치과병원장, 임현태 진료부장, 김종덕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기종 회장은 "교총은 최대의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권 보호 및 전문성신장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채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교육활동을 펼치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일영 병원장은 "최근 교권의 추락으로 인해 교단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된 사실을 매체를 통해 접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침체된 교단의 분위기에 작은 활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남원시 시민참여단,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

남원시는 지난 3월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단 30명으로 구성된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에 의하면 밤길 안전지킴이는 여성과 아동의 성폭력 등 범죄 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밤길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순찰활동은 3개조로 구성해 올해 3월부터 취약지역을 돌면서 보호가 필요한 여성·아동 등의 안전확인 및 후미진 골목 학교 주변, 놀이터 등 야간 취약시간대 방범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미화 여성가족과장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여성과 아동,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강경화 치과병원장은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의 시설을 갖춘 치과병원에서 교총 회원들에게 최선의 치료진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병무청장,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과 간담회

관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 병무담당 총괄 관리자를 초청해 지자체 전시임무교육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청사 대회의실에서 29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전시임무교육 운영 성과와 '23년도 교육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병무청과 지자체간 상호 소통과 공감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전시 병무담당 교육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권역별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750여 명의 병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관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지자체 병무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내실있는 교육운영으로 전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현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군, 군민 대상 나무 나눠주기 행사 개최

진안군은 29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진안고원시장 광장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이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나무 식재의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배부된 나무는 대추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체리나무 등 유실수 5종으로 총 4,000주를 마련해 식재요령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특히 봄철을 맞이해 쓰레기 및 농산물 자재 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안소방서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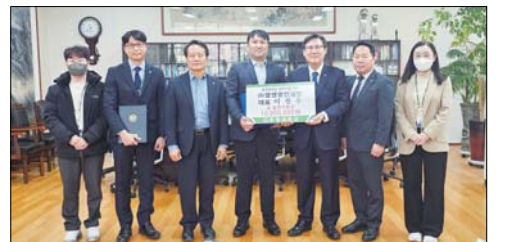
전춘성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나무심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무와 숲이 주는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61천그루 나무심기 캠페인 실시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권오정)는 29일 농협과 함께 심는 '61천그루 나무심기 캠페인'(61천그루 : 1961년 농협 설립 후 함께 손잡고 걸어온 지난 61년을 의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설천면(면장 이지영) 및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관)임직원들과 함께, 2022년 '농협과 함께 걷는 61억걸음 걷기 캠페인'목표 달성에 따른 ESG 실천 캠페인 후속으로 '61천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설천면 충훈탑 주변에 남천나무를 식재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영안영컨설팅, 호원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9일 (주)영안영컨설팅(대표 이천우)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강희성 총장을 비롯해 정의봉 부총장 항공관광학과 김영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강희성 총장은 "우리 대학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 해 준 이천우 대표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준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우 대표는 "오랜만에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학생들과 대학 발전에 뜻깊게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영안영컨설팅은 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 감시단 시찰반 등 인력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지원용역 업체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종합 기술용역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회사다. /정은성 기자

전북우정청, 2022년 우정사업 경영평가 최우수

전북지방우정청은 '2022년 우정사업본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청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0일 도내 총괄국장 우정청 국·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총괄국장 경영전략회의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전북우정청 경영평가 최우수청 달성 축하를 진행하며 '진안우체국, 군산우체국, 부안우체국'의 도내 경영평가 최우수국 선정 표창패 및 포상금도 함께 수상했다.

회의를 통해 '22년 경영성과 리뷰 및 '23년 사업별 중점 추진 전략 총괄국별 역점 사업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 2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청 달성을 다짐하고 갑질 근절 선언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뜻을 같이해자는 의견을 모았다. /김영태기자